

5·18기념재단- 시민단체 갈등 해결 '물꼬'

재단발전·이사장추천협의회 구성 극적 합의 구속부상자회, "비리 바로잡자" 다른 목소리

이사장 선인과 재단운영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5·18 기념재단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발전협의회와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갈등이 해소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5·18 구속 부상자회 회원들은 양회승 회장의 횡령과 비리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5·18 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주예술인총연합, 광주시 등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대동성전에 입각한 상호성찰을 기초로 5·18기념재단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재단, 사회시민단체, 광주시, 오월단체, 학계, 언론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재단의 위상과 역할 사회적 책임성

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오는 7월까지 혁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 대행체제로 운영되고있는 이사장 선출에 대해서도 공동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장을 추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앞두고 특별법 통과, 발굴조사 등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상정립의 새로운 국면이 열려 여느때보다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높다"며 "오월정신으로 하나된 재단의 운영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18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은 같은날 집행부의 공급횡령에 대해 회장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5·18구속부상자회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행부는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5·18자유공원 내 자동차판매기, 자판기 등을 운영했지만 한 번도 그에 대한 결산이나 보고 없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5월 단체들이 25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기념재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5·18기념재단 발전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이 특정인의 배반 불렀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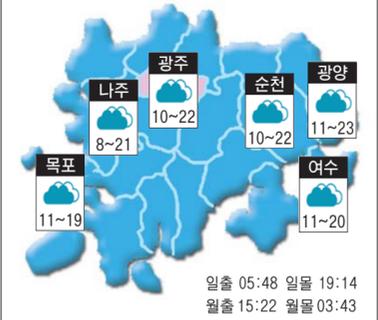
이어 "10여년이 넘는기간동안 매점과 자동차판매기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횡령한 양회승 회장과 특정인에 대해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고소고발해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 "전남도에서 매년 회원 자녀(대학생·중고교생)에게 인재육성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장학금의 절반을 본회로 입금시키려는 반강요적인 행위를 지속해와 피해자는 2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회승 회장은 "복지사업

단장이 개인 돈을 투자해 매점과 자판기 일부를 운영했지만,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장학금 또한 기부금 형태로 받았다. 회원 본인이 기부금에 동의하고 송금을 해준 것이다. 횡령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길용현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10~22	순천	10~22	광양	11~23		
나주	8~21	여수	11~20	목포	11~19		
일출 05:48 일몰 19:14 월출 15:22 월몰 03:43							
장성	8~21	흑산도	10~18	담양	8~21	구례	8~23
화순	8~22	곡성	8~22	영광	8~20	완도	10~21
함평	9~21	강진	8~21	무안	10~20	장흥	8~21
영암	9~20	해남	9~20	진도	9~19	고흥	9~22
신안	9~19	보성	7~21	목포	만조 11:34 ~--:~ 간조 04:20 17:05	여수	만조 06:38 19:10 간조 00:10 12:51

"담 도수로 물 새 나와 농사 못지어" 농어촌공사-농민 40년째 갈등

영산강 1차사업으로 담 도수소가 만들어진 뒤 물이 새 나와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4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장성함평지사에서는 수차례 수역원을 들여 방수공사를 했고, 버려다시피 한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보상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민원인 김 모씨(79·여)에 따르면 지난 1978년에 영산강 도수로 공사를 실시할 때 제대로 된 측량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공사해 1,300여평의 논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12만원을 받고 내 땅 아래에 용수로 설치를 허가했는데 자꾸 물이 새서 20년 넘게 돈벌이를 해온 딸기와 비닐사를 못하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해도 공사 측에서는 땅 주인 허락없이 방수공사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계속된 민원제기에 농어촌공사가 땅을 매입키로 했지만 평당 30만원에 달하는 인근 땅값보다 턱없이 낮은 11만원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 1989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역원을 들여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해 결국 그 땅을 매입키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땅값을 2배나 높게 부르는 통에 매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종찬 기자

"5·18 진상규명 제대로 해야"

광주정신포럼, 규명위 활동 방안 제시

오는 9월 출범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25일 오후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에서 '5·18진상규명, 완성품 조사에 이르려면'이라는 주제로 광주 정신포럼이 열렸다.

각계 전문가들은 국가가 5·18 당시 저지른 학살을 공식인정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5·18 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은 "국가가 잘 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며 "계엄군에 의해 광주에서 최소한 160여 명이 숨졌지만, 전두환·노태우·정호용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행위는 진압작전 과정에서 숨진 17명 뿐이다. 나머지는 자위권 발동에 따른

정당방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군부 세력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 통합 차원에서 사면·용서는 처벌 다음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5·18진상규명위가 출범하기에 앞서, 광주 현지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제정될 시행령에서 민간 전문가가 대폭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5·18 기록물을 다양하게 확보해 교차 분석으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며 "광주 시에도 구체적 권한을 지닌 실무위를 꾸리고, 각계각층이 5·18 의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전남경찰 왜 이러나"

전남 현직 경찰관 음주사고로 불구속 광주 일선서장 부적절 언행 감찰받아

공무집행 중 폭언 및 폭행 등의 여러 고충을 겪으며 민생치안을 돌보는 '민중의 지팡이'가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 사고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찰관들이 조직내 사기저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경찰관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의 원인은 '술'에서 비롯돼 흐트러진 기강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북부기강 확립을 위해 경찰은 화상 회의 등으로 내부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근본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강진경찰서 소속 A경위는 이날 0시 20분께 광주 남구 입암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

로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6시께 강진을 한 교차로에서 해남경찰서 소속 B경사(52)가 만취상태에서 지나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로 마티즈 여성운전자와 B경사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각각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가해운전자인 B경사는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면허취소)로 확인됐다.

광주에선 현직 경찰서장이 술집에서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 C총경은 이날 새벽 0시 24분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과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신고 여성은 '술자리에서 만난 C총경으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조종수사를 한 파출소에서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다"며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경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원파악 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C총경을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잇따른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민생치안 최일선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경찰들이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면 공권력 위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처벌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내부기강 확립을 위한 화상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펴고 있지만 무엇보다 경찰 스스로 자정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광민·김종찬 기자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다스코이주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 Ltd.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코이주
Ceramic Eco-Business Road Safety Architecture Co., Ltd.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화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 태양광 영업인재 모집**
 - 태양광 EPC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화 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R&D	
세 라 코	수질정화	설계영업	나 주
	세라믹 (점토벽돌)	영업 R&D	

* 접수문의: 담당자 06)370-2137, recruit@dascoco.kr, 접수기한: ~ 채용시까지